하나님 그늘 안과 밖의 차이

(미가 1장 1절~16절)

1.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2.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3.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4.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5.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13.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에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그늘 안과 밖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그늘 안과 밖의 차이'
요즘 지방자치단체 별로 앞 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의 그늘막입니다. 전국에 7,000개에 달하는 그늘막이 설치되었는데 한 일간신문의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그늘막 실험을 했습니다.
8월 초 오후 2시에 한 여성 참가자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 있는 그늘막 아래에서 10분간 서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신체 중 가장 뜨거운 머리 부분을 측정한 결과 처음 1분에는 41.9도였으나 5분이 지난 후에는 42.7도 10분 후에는 43.2도로 약간 올랐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기자가 그늘막 밖으로 나가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불과 1분이 지났을 뿐인데 머리의 표면온도가 48.7도로 올라갔습니다. 5분 후에는 58.6도가 되었고 10분 후에는 6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36.5도의 신체 온도보다 무려 25도나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자가 표현하기를 뜨겁다 못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폭염에 대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양산이라고 합니다. 양산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에 신체표면 온도는 10도에서 20도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산 중

에서도 안쪽이 검은색으로 된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지표로부터 발산되는 복사열까지도 흡수해줍니다. 옷 색깔에 의해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각각 흰 옷과 검은 옷을 입고 바깥에 2분 동안 서 있은 후에 온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흰 옷은 2분 후에 표면온도가 40.6도가 되었고 검은 옷은 52.5도까지 올라가서 12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실험 기사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사십 년 광야생활이 생각났습니다. 광야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다녔던 구름기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도저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나서에서 요나가 박 넝쿨을 가지고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를 쉽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햇빛은 너무나 고마운 것이지만 사막에서의 직사광선은 무척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3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에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참 보기 드문 내용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딸 시온은 남 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며 선민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편 라기스라는 도시가 등장하는데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정도에 위치하는 남 왕국 유다와 애굽의 접경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라기스는 애굽의 선진문명을 수입하는 관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애굽의 모든 우상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였고, 애굽의 준마들을 수입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애굽의 준마들이 언급 될 때에는 으레 하나님의 경고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모세 때에도 그러했고 다윗 때에도 애굽의 준마를 경계하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는 결국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준마를 수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준마에 대한 경고를 주신 이유는 당시에 말과 병거가 군사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수입해서 군사력의 강화를 꾀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애굽의 준마를 탐내는 것을 경계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접경도시였던 라기스는 바로 애굽의 준마들을 수입하는 곳이었으며 따라서 마병과 병거들이 많이 배치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라기스를 요새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라기스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죄의 근본이 된다고 합니다. 이 13절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신학을 한 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죄의 근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그늘막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자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으면서 만나는 세상과 하나님의 그늘 바깥에 있으면서 만나는 세상의 삶을 비교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늘 밖에 나와 있다면 스스로 세상과 만나고 접촉하면서 관계해 나가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예로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배우자와 관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배우자와 관계하게 되고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관계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죄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해 몸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과 마음으로 직접 관계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만나는 대상을 마음으로 직접 관계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늘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선민들이 하나님의 그늘 밖으로 나와 나라의 안전과 국방에 직접 관계하고자 하게 된 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선민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하나님의 그늘 바깥으로 나와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통해 드러난 미가 선지자의 사상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봅니다.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대상은 발열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나의 태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에 상대방이 태양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열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렇게 마음의 뜨거움을 전해주는 대상은 연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접하는 모든 대상이 그러한 열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 대상만이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대상은 내 마음에 열을 받게 합니다.
흔히 화가 날 때에 열 받는다고 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자면 마음에 시동이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동이 꺼진 자동차는 싸늘하게 식어있습니다. 그러다 시동을 걸면 엔진에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부장님에게 호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호통의 순간에는 오직 부장님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장님이 마음의 태양처럼 되어버린 것이고 부장님이 마음에 시동을 걸어서 열을 발생하게 한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의 말씀대로라면 바로 이렇게 몸으로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열을 내게 되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고 합니다. 선민들에게는 나라가 바로 마음에 열을 내게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나라로부터 열을 받게 되자 마음에 시동이 걸리고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지옥을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로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의 말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괴로움이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접하는 대상들과 마음을 직접 관계하게 될 때에 뜨거운 지옥의 삶은 시작됩니다.
배우자라는 발열체에 대해서 마음이 직접 관계하게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선민은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세상과 관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광야생활을 통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광야생활조차도 복지의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광야 시절의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으면 광야에서도 복지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늘 바깥으로 나가서 몸으로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 마음이 직접 반응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복지에서도 광야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문제라고 여겨질 때에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은 배우자와 마음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서 배우자라는 발열체가 내 마음에 시동을 걸거나 열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차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바깥으로 나온 마음은 8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 맨 몸을 노출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표면 온도가 63도까지 올라가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민할 때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 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그늘에서 나와 발열체가 되어버린 자녀나 배우자 등을 직접 관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의 준마를 수입하게 되었던 이유는 나라의 안정이라는 문제에 마음이 직접 관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에서 나오자 나라라는 발열체가 선민들의 마음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열이 나고 움직일 힘이 생겨나듯이 선민들의 마음 또한 어떻게든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삶은 꼬이고 비틀리게 됩니다. 순조롭고 순탄한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13절에서 라기스를 통해 애굽의 준마를 수입하는 것이 죄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몸이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 결코 마음이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말썽이어도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길지라도 직장에서 힘든 환경에 놓여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몸으로 만나는 대상과 직접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항상 하나님 그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대응하고 관계하게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삼아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그늘막 실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큽니다. 그늘막 바깥에서는 63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표면온도가 그늘막 안에서는 43도에서 억제됩니다. 이 20도 차이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느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들어가면 삶은 서늘하고 상쾌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번에 LA에 가서 놀랐던 것은 환경에 대한 교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LA가 살기 좋다고 하시는데 저로써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LA는 강도 없고 도심을 나가면 주변이 다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기 좋다고 하는 이유를 이번 여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LA의 여름은 한국과 비슷하게 낮이면 34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되자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습도가 낮아서 쾌청하기까지 합니다. 한여름에 그런 쾌청함을 느낄 수 있기에 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한편 한국으로 돌아와서 인천공항에 내리자 엄청난 습도가 느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한 번 쾌청함을 맛보고 나니 한국의 여름이 유난히 덥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녀나 배우자는 뜨거운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태양빛에 직접 마음을 노출시킨다면 마음의 온도는 끝도 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우니 화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문제, 취직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마음이 직접 관계한다는 것은 그늘막 없는 사막의 햇볕을 마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겁도 없이 이러한 상황을 대면하게 되었으니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죄악은 곧 하나님의 그늘 바깥으로 나가서 몸이 만나는 대상들과 마음이 직접 관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할 때에 맛있는 반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이들의 손을 치며 식사예절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몸이 만나는 대상들에게 마음이 관계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회사에서 부장님께 야단을 맞을 때에 몸은 부장님 앞에서 야단을 맞고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부장님과 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부장님께는 실례일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조차도 마음은 십자가를 기억하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 한 가지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장님의 호통과는 상관없이 마음은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롭게(refreshing) 된다는 것이 곧 하늘을 호흡함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호흡하여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집안에서 자녀나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우리는 결코 마음이 직접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직접 관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마음은 열을 받게 되고 시동이 걸려 반응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대상들에 마음이 관여하고자 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대상들과 직접 대면하려는 나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보면 몸으로 만나는 대상들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접촉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마주대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는 나의 생각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입과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몸이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발열체인 세상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직접 관계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배우자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십자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배우자가 발열체처럼 열을 뿜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을 차단하실 것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한 상쾌함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힘이 배우자에게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직접 관계하여 상황을 호전시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열 받아 죽어가며 한에 사무쳐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원수를 갚겠노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돌로 치는 사람들과 스데반 집사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새롭게 됨을 느낄 수 있었고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주도하던 청년 사울의 마음을 쪼개어 바

울로 바꾸는 초석이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사울은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며 그 마음이 하늘에 정복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몸이 만나는 대상과 마음을 직접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보았던 죄의 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쾌하고 기쁘고 행복한 에덴의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몸이 만나는 대상과 직접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늘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습관적으로 삶에 반응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몸으로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늘의 기쁨과 만족이 십자가의 약속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유쾌함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동안에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남 왕국 유다의 선민들이 나라를 대하는 방법도 이와 같았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 애굽의 준마를 수입하기에 앞서 마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를 떠올리며 마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마음으로 나라와 직접 관계하며 군사력을 위해 애굽의 준마를 수입하는 죄악 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의 마음은 한 여름의 땡볕 아래에 놓인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몸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열을 발산해서 시동을 걸게 합니다. 절대로 직접 관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직접 관계하려는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죽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십자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늘과 유쾌한 복지의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몸이 만나는 대상들에 직접 반응하고 관계하고 처리하려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복을 일상적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